

불자마라톤동호회 생긴다

경주남산 산길마라톤대회, 달마 마라톤대회 등 불자 마라톤대회가 열리면서 마라톤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라톤을 매개로 불교를 널리 알리는 불자마라톤동호회가 내년 3월 5일 발족된다.

불자 아마추어 마라토너 10여명은 11월 30일 불자마라톤동호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마라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장에 이종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씨, 사무국장에 이종철(서울광역신도회사무처장) 씨 등이 선출됐다.

강지연 기자

파라미타 봉사 터전 인증

파라미타청소년연회 상설기구나 파라미타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으로 인증받았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 인증은 서울시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청소년단체를 공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파라미타는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강지연 기자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단체의 일꾼이며 연등축제의 상징인 '장엄등(燈)'의 제작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2월 18~20일, 2005년 1월 22~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기 2549년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한다. 봉축행사 참가단체 제작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장엄등 제작 강습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10일 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7)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종교자유정책 연구실립키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이하 재가연대)는 11월 27일 우리 함께 회관 6층 수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과 2005년 사업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역점 사업인 우리 함께 회관 매입건, 특별기구인 종교자유정책연구실립(가칭) 설립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강유신 기자

전국 여성불자 연대 모색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4돌 맞아 도약선언

새 원장을 맡은 불교여성개발원 이 재도약을 선언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하 개발원)은 11월 30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 및 원장 이·취임식'을 열고 역량강화를 위한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발원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여성 불자 인재 양성이다. 김인숙 신임원장은 여성 불자 육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장학금 지급, 유학 지원 등 도움의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불자 108인을 추가로 선정해 여성 불교 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리더십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불교여성아카데미를 발족하고 불교여성 리더십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심 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불자 발굴에만 주력해 왔던 이 재는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승만경> 등의 대중강좌, 불교여성학 관련 논문 공모 등을 실시해 여성 불교 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불자 가정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폭도 넓힌다.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혼인준비교실을 이어가는 동시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실'을 개설한다. 여성 불자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역시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확보 사업 역시 개발원의 주요 과제.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성 불자들을 위한 문화 공연 등의 후원 행사를 추진하고 기금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이 11월 30일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부터 이인자 전 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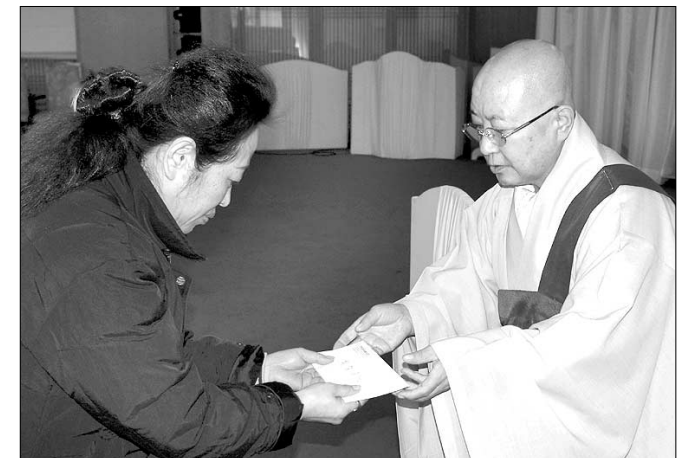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한다. 또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의 단체를 거울삼아 불교여성회관 설립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독립된 법인체 설립을 목표로 내실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김인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4년 동안 인력과 재정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딛고 발전의 물꼬를 트었다"며 "앞으로 지부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며 전국 여성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것을 비롯해, 타종교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lishy@buddhapia.com

한마음선원, 간암환자 20명에 1억8천만원 전달



12월 1일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은 제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간암환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은 12월 1일 2층 강당에서 간암 환자 20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암환자대회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에서 모금된 수익금과 특별보시금 등 총 1억 8천만 원.

해원 스님은 "모든 병은 마음먹기 달렸으니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살아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어 합창제 공연을 보러 온 1만여 불자들의 정성과 자비스런 마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각각 7백만 원~1천만 원 정도씩

성금을 받는 수혜자들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비롯해 한양대 병원과 전남대 병원 등 10여개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혜자 중에는 중국 연변 출신의 조순복으로 간암 진단을 받고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예숙(47세)의 딱한 사연이 알려져 성금 전달 행사장을 숙연케 했다. 특히 김씨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남대 병원의 계좌로 성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간경화로 판명돼 대구 가톨릭 대학에 입원해 있는 홍일순 환자는 자신이 다니는 절(경북 안동 월안사)의 주지 스님이 대신해 행사장을 찾아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생명나눔 회원 배가 나선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2005년 사업목표를 협회의 역할 및 역량강화로 삼고 생명나눔운동과 환자 돌기 지원 등 기존사업에 심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배가를 통한 생명나눔운동 확산 △회원만족도를 높이는 조직관리 △업무역량의 전문성 강화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자원 확보 △대중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사업 설정에 들어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백혈병 환자들을 돌기 위한 골수기증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회원 및 재정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와 목포시부의 창립을 돕고, 호스피스 및 간병인 교육 수료생들과 관련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통해 재가복지 분야의 발전도 꾀할 생각이

다. 특히 '건강지킴이 캠페인'을 통해서 기존의 목적사업 중심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인사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창립10주년을 기념행사 뜻깊은 자리'를 열고, 자원봉사자 및 골수기증자 등 회원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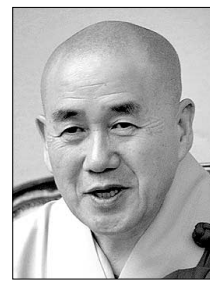
김은경 기자

“열린 수행의 장 만들터”

인터뷰 | 중앙승가대 총장 재임 종범 스님

“중앙승가대를 시대에 공헌할 수 있는 열린 수행의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9일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법장) 제68차 이사회에서 제4대 총장으로



선출된 종범 스님은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교육의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대로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이 없었던 중앙승가대에서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연임까지 하게 된 종범 스님의 재임배경에는 스님이 중앙승가대가 김포화사로 이전 후 학교의 안정에 기여한바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단 내 유일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중앙승가대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종범 스님은 “저 역시 수행중심의 교육, 교화중심의 교육,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교육 가운데 어느 것에 역점을 둘 것인가를 놓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취임 2기의 목표로 “과거를 바탕으로 명분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종단 내 중앙승가대의 역할을 찾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차원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이나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종범 스님은 “승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 인식이 개선되면 재정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 승가교육 재정확보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앙승가대가 전통강원과 일반대학(동국대)의 성격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기관임을 강조한 “행복, 행복, 삶의 의미를 자각케 하고 시대에 공헌하는 인재배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승가의 전통교육과 일반대학의 제도가 어우러진 열린 수행의 장으로 중앙승가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용수 기자

도롱뇽 소송 기각·각하 판결에 반발

환경단체 대법원에 항고기로

3개월 동안 끌어진 도롱뇽소송 항고심에 대해 부산고법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철도시설공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사 재개에 나선 반면, 지을 스님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재항고의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중대 부장판사)는 11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터널공사가 무제지능이나 화염등 등의 고산능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어렵다”며 기각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판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천

성산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11월 29일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하겠다. 국책사업에 대해 무조건 손들 어주지는 식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다양한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지을 스님은 “기소편의주의와 심증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에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10월 27일 시작한 제4차 단식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해, 여론 앞에서 재판의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12월 3일 현재 단식 38일째인 스님은 최후대로 장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천미희·강유신 기자

Advertisement for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Far-infrared radiation heat film) by Korea Electric Heating. The ad features a grid of images showing the product installed in various rooms like living rooms, bedrooms, and offices. It includes a table comparing different types of heating systems and their costs. The text emphasizes energy efficiency and space-saving benefits.